



미키  
라오스



# 풍송'by 캄라





나는 진정 행복한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꿈이 있는가?



**의미 있는 하루하루, 치열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꿈을 이루기 위해 젊음을 바치는 것이 당연해지고,  
짧은 인생을 덧없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 현재에 집중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에,

집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이나 읽는 것을 좋아하는 나는,  
심적으로 설 자리가 없었다.



현재에 집중하며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과  
꿈을 위해 젊음을 바쳐 노력하라는 말들.

그 사이에서 참 많은 시간 동안 저울질을 해왔던 거 같다.





**꿈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자 책을 무수히 봤다.  
하지만 책에는 정답이 없었다.**



진정한 행복을 알고 싶어 라오스에 왔다.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많은 행복한 사람들을 만났다.

하지만, 어느 누구의 삶도 내 행복의 정답이 되지 못했다.



**살아오면서 난 좀 특이한 사람인가 부다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안 특이한 사람은 없었다.**



**위인의 명언이 개떡같은 소리로 다가오고,  
여느 사람들의 개똥철학이 삶의 진리로 다가올 때,**

**난, 내 인생의 정답을 내가 이미 만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제야 좀 안 흔들리고 현재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개떡같은 소리다.  
내가 정답이다.



**꿈도 행복도 고통도 내가 정하는 것이다.**

A night scene of a coastal town. In the foreground, there is a wooden deck. The middle ground shows a sandy beach and a row of buildings, some with lights on. In the background, there are mountains under a dark blue sky. A utility pole with power lines is visible. On the right side, there is a thatched roof structure. The text "윤지의 푸딩댕" is overlaid in the center.

# 윤지의 푸딩댕



# 라오스

---

삶이라고 생각하니 일이 힘들지 않고  
문화라고 생각하니 다쳐도 아프지 않다.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피부는 산과들에 전혀 친숙해지지 않는다.

흥터에 신경 쓰지 않는 내 마음이 그것들과 친해졌다.

나의 라오스 생활은 그저 살고 있는 것, 살아가는 것.  
거창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동안 나는 내 일상의 대부분을  
보고서에 소개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중 한가지로, 따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생이자 아르바이트생, 농부이며 요리사,  
비공식 의사선생님이자 여러 과목의 선생님, 후원가,  
흔한 동네 언니였다가 슈퍼스타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

결혼식이 참 많았다.

둘째언니가 결혼했다.

신혼방을 예쁘게 꾸며주고 결혼식 준비를 도왔다.

친구네 누나가 결혼해서 청첩장을 같이 만들기도 했다.

청첩장도 여러 번 받았다.

받는 이에 적혀 있는 내 이름을 보면서  
같이 살아왔구나, 나 혼자만 현지에 젖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생일파티에도 많이 초대받았다.

집안일을 도우려 일찍 집에 돌아오려고 해도  
지나가는 길에 꼭 붙잡혀 술을 마신다.  
웬만한 곳에는 다 불려간다.

별 행사가 없었을 때에도 하루 종일 술을 마셨는데  
요즘은 더 많은 양의 술을 더 빠른 시간에 마신다.



나는 지난 세 달동안 참 많이 조급해 했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고,  
바꿀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래서 더 많이 욕심부렸고,  
그 이상의 성과를 보고자 했다.

부딪혀보고 싶었다.  
실패하고 싶었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모르니까,  
몰라서  
더 도전하고 싶었다.

이런 내 모습에 “넌 참 멍청하다.”라고 말해주는 친구가 생겼다.  
같이 술 한잔 기울이며 내 고민을 들어주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짚어준다.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라온아띠로 온 덕분에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나는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다시 우리 마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

집에 화장실이 있는지  
혹은 없는지  
있다면 몇 개나 있는지  
전기는 들어오는지  
들어온다면 얼마나 되었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필요한 게 있는지  
왜 필요한지  
왜 누군가는 풍족하고  
누군가는 부족한지

그런 걸 알아가고 있다.



우리 팀원들은 참 잘 지내고 있다.

그들을 보고있으면

“라온아띠란 이런 거야, 마을 살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온 몸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라오스인과 다름 바가 없는 맛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들 라오스 가족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살고있는 마을을 사랑하고, 진심을 나누고 있다.

우리들의 가족들은 하나같이 한국인을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준다.

우리 팀원들이 참 잘 하고 있기 때문이겠지.

라오스에 와보지 않으면 모른다.

우리가 라온아띠로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의 짧은 보고서 안에 우리의 일상을 다 담을 수도 없을 뿐더러  
현지인들에게 전하는 긍정적인 씨앗은 상상할 수도 없겠지.  
우리가 보여지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더 그럴지도 모른다.



사실 팀원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말을 붙이고 다녔던 나는 진심으로 느낀다.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이자 가족인지.

힘들지 않아서 힘들다.  
큰 뜻을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막연하게 파견이 되면  
힘든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나를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성장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다.

그런데  
이곳은 그냥 따뜻하고,  
편안하고,  
정겹고,                    힘든 게 없다.  
즐겁다.                    그래서 발전이 없다.  
                                 생각이 성숙해지지도 않았고  
                                 정진할 수가 없다.  
내면적으로 성장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그대로이고,  
라온아띠를 오기 전의 나와 달라진 게 없다.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어리다.  
변한 게 없다는 게 처절하게 느껴져서 힘들다.



나는 팀원들에게 참 많이 배운다.

우리 팀원들은 하나같이 성숙하고, 다정하다.

진심으로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한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잘못부터 찾아본다.

무엇보다도

‘같이’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들.

힘이 드면 기댈 곳을 내어주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한다.

우리 팀이 갈등이 없는 이유는 지나친 배려인 줄 알았는데,

배려가 우리 팀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 줄 알았는데,

요점은 배려가 아니었다.

배려하고자 하는 시작점.

나쁜 배려이든 좋은 배려이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려는 마음.

나보다 더 나를 잘 이해하고

조언이 필요할 때는 조언을,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해주는

고마운 사람들.



팀으로 만나서 감사하다.

어쩌면 나에게 가장 큰 라온아띠는 우리 팀원일지도 모르겠다.

남은 기간을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간,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삼고 싶지 않다.

늘 그렇듯이  
평소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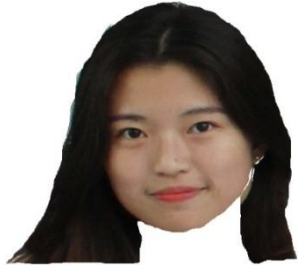
나는, 우리는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할 곳에 있고,  
하고싶은 일을 하고,  
해야할 일을 하고,  
술 때 쉬고,  
살고,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 따노이 의 마을

나카에



**‘아.. 수업 하기 싫다.’**

**참 이상하지. 수업 할 때는 참 좋은데 수업 하기 전에는 그렇게 수업이 하기가 싫다.**

**수업 30분 전 부터 “파노이 히얀 파싸 까올리 (한국어 공부하자)” 말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수업 시간에 서로 나가서 적겠다고 손 들며 투닥 투닥 거리는 모습을 볼 때면**

**한국 동요를 너무 잘 따라 부르는 친구들을 볼 때면**

**그렇게 이쁜 내 제자들을 볼 때면 수업 하기 싫었던 그때의 마음을 반성 하기도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난 수업 하기가 귀찮다.. ㅎㅎㅎㅎ**

**지금은 수업 2시간 전....**

## I Love My Family I

조금은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 한다.

라오스 생활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 내 머리에는 이가 생겼다.

그 때는 아주 조금이라 둘째 동생이 잡아주곤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수록 너무 많이 생기자 동생이 너무 많아서 못 잡겠다고 포기 선언을 했다.

그리고 오늘.

엄마가 머리를 이쁘게 깎아주겠다고 하셨다.

‘하.. 내 머리에 이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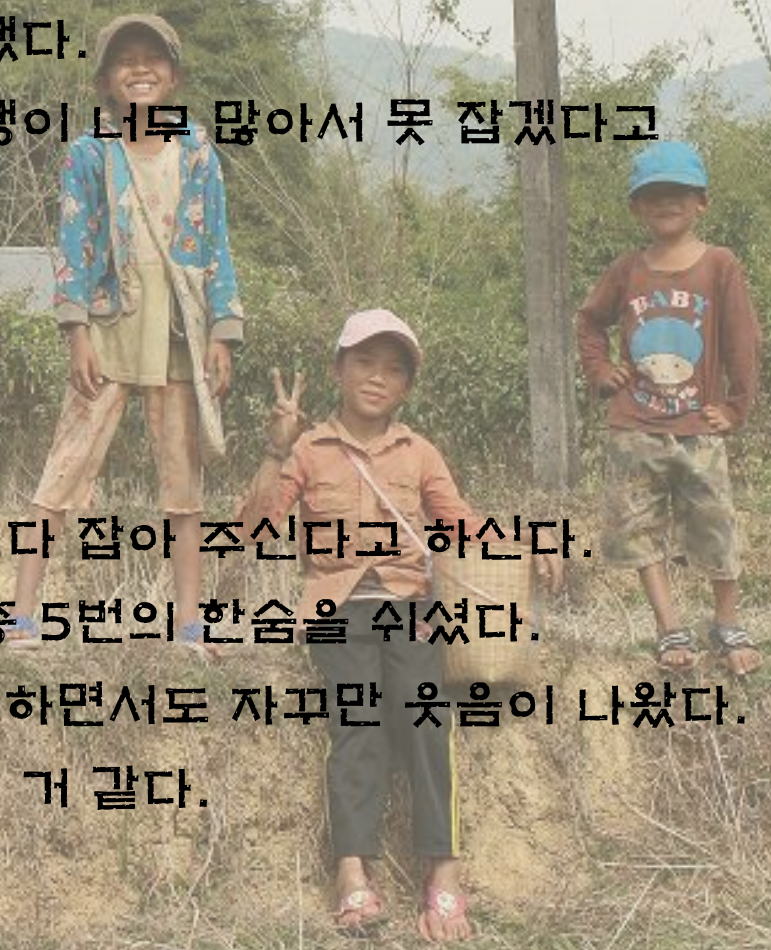
엄마한테 솔직하게 고백했다. 엄마가 괜찮다며 다 잡아 주신다고 하신다.

그렇게 엄마는 두 시간 동안 이를 잡아주셨고 총 5번의 한숨을 쉬셨다.

머리를 대고 있는 동안 힘들어하는 엄마께 죄송하면서도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한국에서도 라오스에서도 난 참 가족 복이 많은 거 같다.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도 가족 사진이 생겼다.  
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로 드릴까  
내가 없는 사진을 드릴까 고민하다, 내가 없는 사진을 뽑아 액자로 드렸다.  
엄마가 보자마자,

“파노이 없어. 파노이 한국가면 보고 싶을 때마다 봐야 하는 데…”

압…

저기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느껴진다..  
그치! 파노이도 가족이지!!!!

많이 좋아합니다. 우리 가족 ♥

I Love My Family II

## 함께가요, 우리

돈이 없어도  
장애가 있어도  
언어가 달라도  
생김새가 달라도

모두 친구가 될 수 있는 곳.  
웃는 모습이 정말이지 너무 이쁜 이곳 사람들.  
내가 본 라오스, 나케의 모습이다.

모든 이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

대한민국도 그런 곳이였으면.



# 캄퐁의 위앙싸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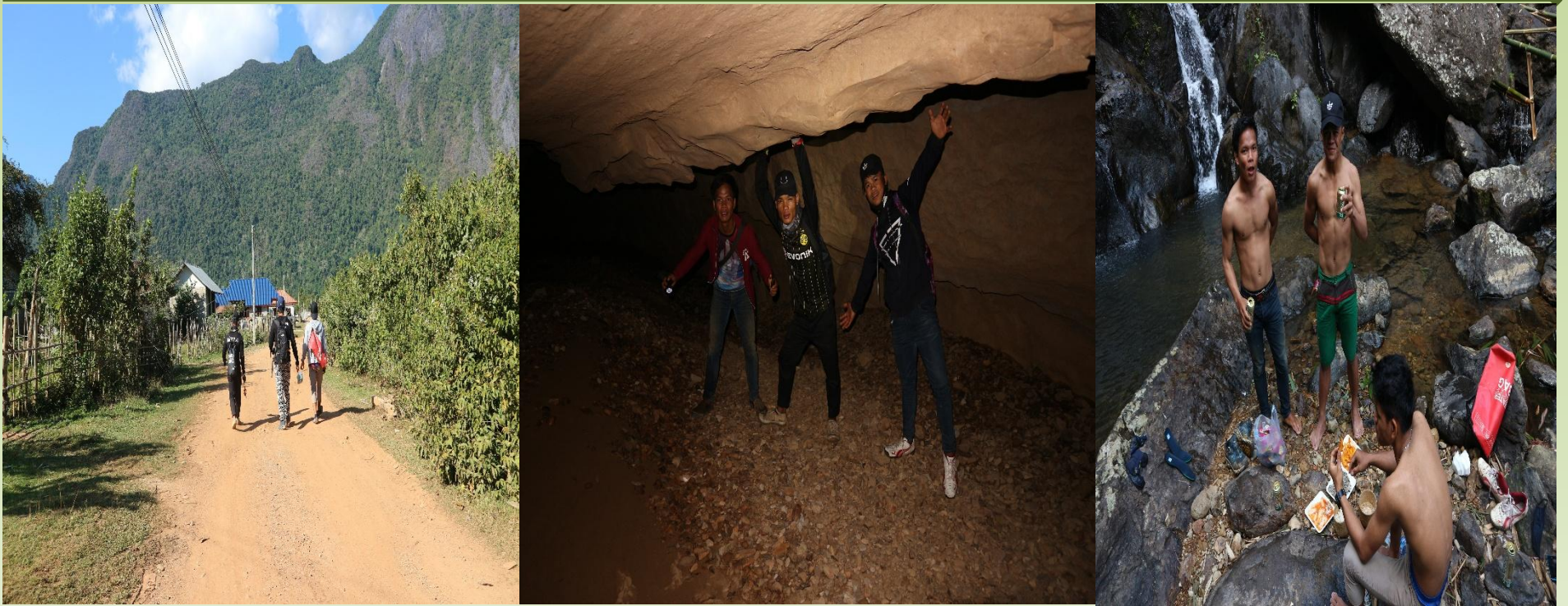
- 두 달 정도 텃밭에 자란 채소를 주변 이웃들과 라온아미 친구에게 나눠주었다. 텃밭이 작아 주변 분들에게 나눠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는데 엄마가 주변에 나눠주면 어떻겠니 라는 말에 공감하여 나눔을 하였다. 작은 것까지도 주변 사람들과 나눔을 하시려는 어머니를 보며 또 한가지 배운다.



- 가끔 시내에 나가면 간편 음식을 사서 몇 번 음식을 했었다. 나중에는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해드리고 싶었고 최근에 큰 까올리(한국) 마트가 생겨 한국 음식을 하는 것에 있어 큰 지장이 없었다. 어려운 요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이 들어간 요리이고 입맛에 딱 맞아하시지는 않았지만 음식을 해드리는 것에 있어 뿌듯함을 느낀다. (미역국은 반응이 좋았다.)



# RaonAtti 피크닉



- 이날 라오스는 휴일이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았다. 그래서 마을 친구들과, 동생들과 함께 위앙싸마이 뒤편에 있는 남탤(동굴), 남뚝땃(폭포)에 피크닉을 떠났다. 위앙싸마이로 해서 남송을 건너 동굴을 지나 산을 오르기까지 굉장히 힘들었던 생각이 들면서도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 이번 연말은 술과 함께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이날은 마을에 밧시 행사가 있어 기원도 하고 밥과 술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늦은 저녁이 되자 현란한 음악소리가 들렸고 평소 차분해 보이셨던 아주머니들도 이날은 음악에 몸을 맡기셨다. 현란한 춤 솜씨에 깜짝 놀라면서도 재미있었다.



- 수확철이 끝난 요즘은 가끔 부모님을 따라 장작을 베러 가기도 하고 집 옆에 있는 사탕수수를 잘라 깨끗이 닦고 즙을 내어 가열을 하고 물엿? 을 만들고 있다. 아침에는 마니 혹은 콩이 텃밭에 물을 주고 마니가 집안 청소를 한다. 오후에는 내가 텃밭에 물을 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있다. 설거지는 이따끔 도와드리고 있다.

# RaonAtti 위안싸마이 센터\_1



- 애들과 놀이 (공차기, 줄넘기) 외에 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가끔씩 그림 그리기를 같이 하고 있다.

## RaonAtti 위양싸마이 센터\_2



- 마을에 지내면서 느꼈던 건 환경에 대한 인식 부족이 많았었다. 정기적으로 학교와 센터에서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 줍기는 따로 하지 않았고 이틀 동안 환경오염에 대한 교육을 하였다. 예전에 준비해둔 자료를 토대로 캄손이 번역을 도와주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고 거기에 깨오가 나를 도와주어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았다.

## RaonAtti 위안싸마이 센터\_3



- 교육 내용으로는 주변에 쓰레기를 버려 잘못하면 동물이 먹어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다. 병에 걸린 동물을 먹게 되면 자칫 사람에게도 위험하고, 비와 오게 되면 자칫 오염된 토양이 남송(강)으로 흘러내려와 강을 오염시켜 물고기도 죽고 오염된 물고기를 사람이 먹게 되어 안 좋은 병에 걸릴 수 있다. 지금은 물이 맑아 수영도 하고 샤워도 하지만 오염이 되면 수영, 샤워, 동물 식수로도 쓰지 못하게 돼버려 안 좋은 영향을 야기한다는 식으로 교육을 하였고 어린이용으로 된 강 오염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준비해둔 자료를 벽보로 만들어 이후에도 아이들이 재인식 할수 있게끔 할 생각이다.

# RaonAtti 위양싸마이 센터\_4



- 요 근래 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춤을 출 때만 많이 와서 고민이 많았다. 이선재 선생님과과의 대화 시간이 생겨 얘기를 해보았다가 오히려 이러한 고민거리를 아이들에게 던져주라고 하셨다. 아사가 집에 왔을 때 아사를 통해 얘기를 전하였다. 센터는 너희를 위한 것인데 관심이 줄어들면 선생님을 센터에서 구하지 않을 것이고 나도 곧 떠난다 라는 말에 아이들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더니 이후에는 애들이 다시 많아졌다. 또한 아이들에게 어떤 수업을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다시 물었고 한국어 수업은 어렵다고 하여 영어, 춤수업, 그림그림기만 하기로 하였다.



- 이곳은 풍족한 게 아니더라도 나누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술을 먹다가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불러 술을 함께 마신다. 또한 집안 행사가 있거나 batshil을 할 때면 이웃들이 와서 기원도 하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는다. 형식적인 마을이 아닌 사람이 사는 마을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한국 집인 마을에도 아직까지 이러한 느낌이 많이 남아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세대가 아닌 어른 세대인 것 같아 지속 가능하지는 못한 것 같다. 지속 가능할 수는 없을까? 꼭 막힌 곳보다 숨 쉴 수 있는 곳이 좋다. 그래서 여기가 좋은 것 같다.



'동서남북' 다시 엇갈려 나아 가겠지만



우리가 만난 **지금 이 순간**을 잊지 말자.